

로저 그린 박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27, 현대 신학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 분은 교회사 과정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현대 신학에 대한 세션 27입니다.

글쎄요, 12월 9일입니다. 우리는 12월 8일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1854년 12월 8일, 1854년 12월 8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였을까? 1854년. 그것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였고, 1854년 12월 8일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그 날의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2월 9일에 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좋아요, 기도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천상의 아버지, 우리는 이 과정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교 개혁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의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 일을 도와주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맥락에서, 교회의 맥락에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신학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들의 삶에 당신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후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논문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토론 그룹이나 발표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과 정신, 몸과 영혼의 힘을 더 주셔서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이 좋은 방식으로, 당신과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완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 그리고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당신께 하듯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 고든 칼리지는 처음으로 전자적으로 과정 평가를 실시할 것이므로 서면 과정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공지가 바로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그런 다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이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고백할 시간입니다.

저는 E3를 하지 않고 E에서 F로 재빨리 넘어갔고,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본질에 대해 강의할 마지막 시간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F로 넘어갔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F를 마치고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어쨌든 수업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본질,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재빨리 하고 싶습니다.

첫째,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도가 서로 대화를 시작할 때 서로를 바라보는 역사적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신교도가 로마 가톨릭교도와 겪었던 문제를 언급했는데, 아마 노트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로마 가톨릭교도가 개신교도와 겪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는데, 아마 노트에 적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췄을 때 다른 날 멈췄던 곳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곳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토론 그룹에 참여했고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로마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와 비교하고 대조했을 때 성경의 권위는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신교에서 마리아의 위치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마리아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교황의 위치는 개신교에서 교황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또는 교황의 생각은 개신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경에 대해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개신교도들은 정경을 어떻게 보는가?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정경을 어떻게 보는가?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이런 종류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발전된 그런 종류의 역사적 태도를 불렀습니다. 이제 역사적 변화와 어떤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대화의 형성에 있어서 일어난 네 가지 주요 변화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첫 번째 것은 바티칸 2세입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의 바티칸 2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교황 요한 23세와 함께 바티칸 2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Ruth와 저는 목요일 밤 Jim Rudin의 멋진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Jim Rudin은 캠퍼스에서 유대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바티칸 2세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티칸 2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티칸 2세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강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일종의 임시 교황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 루딘이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교황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직위에 앉힐 것이고, 그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교황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티칸 2세를 불렀고,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 그러니 바티칸 2세는 확실히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바티칸 2세가 한 일 중 일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신교에 더 가깝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꽤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역사적 변화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전 세계 로마 가톨릭교와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교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 그가 미국의 첫 번째 로마 가톨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가톨릭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열렸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어떤 사람이 참호 속의 에큐메니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제 참호 속의 에큐메니즘이란 무엇일까요? 참호 속의 에큐메니즘은 공통된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한 발견 중 하나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호 속의 에큐메니즘은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정교회가 많은 경우 함께 서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상호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과 가족의 가치와 같은 이슈,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는 결혼과 가족 가치에 있어서 많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참호 속의 에큐메니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족적 가치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다른 곳에서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개신교, 동방 정교회는 비슷한 신념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낙태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정확히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태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호 속의 에큐메니즘입니다. 포르노,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거부합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 로마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물론 정교회도 그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놀랄 정도로 유사한 견해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호 속의 에큐메니즘이 3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란 복음주의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트르담에서 가르치는 우리 졸업생이자 교수인 크리스찬 스미스가 방금 로마 가톨릭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흥미로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제 말은, 그는 노트르담에 채용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노트르담에서 개신교도로 채용되었지만, 그는 그저 로마 가톨릭교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미로운 순례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의 전통에 끌립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의 예배 경험에 끌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오랜 전통, 교회가 개신교 교회에서는 항상 볼 수 없는 2,000년의 교회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드라마 같은 느낌, 개신교 교회에서는 항상 볼 수 없는 느낌,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들을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년마다 개신교-가톨릭 정교회와 비교 기독교에 대한 상급 세미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몇 견학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견학 중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고든 사람들, 고든 칼리지 졸업생, 정교회 신자가 되어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동방 정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복음주의에서 동방 정교회로 갔습니까? 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서구 세계에서는 동방 정교회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남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미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많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문자 그대로 수십만 명씩 복음주의에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오순절주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복음주의와 오순절주의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남미에 있는 그들 중 일부는 오순절 교회나 다른 개신교 교회에서 영의 일종의 생동감, 그들이 자신의 전통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복음주의와 로마 가톨릭교, 그리고 다소 동방 정교회 사이에 양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이 역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의 본질과 그 후의 합의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본질에 대해서요.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온갖 종류의 집단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로마 가톨릭교도들의 대화의 본질에 놀라실 겁니다.

좋아요, 예를 들어, 가톨릭과 성공회가 서로 대화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과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로마 가톨릭인 성공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옥스포드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그것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물론 옥스포드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놀라실 만한 점은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도가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당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현상입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몇 가지 말할 것이 있었는데, 항상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도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실, 얼마 전 짐 루딘에게 한 질문 중 하나는 루터교도와 대화하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는데, 루터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 꽤 가혹한 말을 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그룹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이 놀라실지도 모르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서로 오랜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공통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꽤 강력하고 성장하는 개신교 교파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꽤 강력한 교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로마 가톨릭교조차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본질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대화의 폭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성공회에서 온 모든 것, 당신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에게 다가갑니다. 좋아요, 지속적인 합의와 불일치는 D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속된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목요일 밤의 어느 날과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인 짐 루딘과 복음주의자인 마브 월슨이 함께 대화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들은 어떤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rv가 말했듯이, 우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속됩니다.

글쎄요, 이건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강의에서 말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를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말하고,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너무 적게 평가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두려워하여 마리아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뒤로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적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훌륭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문제는, 개신교인에게는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교인에게는 성경과 전통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논의될 수 있지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교회의 구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것이 초기 교회의 구조였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신약에서 어떤 특정 교회 구조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신교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방식으로 교황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기본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기본 관행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본 관행은 사제 독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성공회 사제들이 로마 가톨릭 사제가 되도록 허용하는지 강의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가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성직자의 독신은 일종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기본적인 관행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여성의 성직 안수에 대한 전체 문제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 토론 그룹에서 도널드 데이튼의 책에서 나오는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성직 안수 문제는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입니다. 일부 개신교 교단은 여성에게 성직을 안수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성을 성직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관행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의견 불일치는 성례전, 성례전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는 성례전이 두 가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례전이 일곱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의 본질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종교 개혁 때부터 성례전의 본질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의 수와 본질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항상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와 토론. 이제 잠깐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런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를 넘어 다른 세계 종교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와 천주교 간의 이런 종류의 대화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에 이렇게 많은 수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네. 그 다섯 가지에 대해 모두 그렇다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아마도 목요일 밤 유대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브가 한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거기에 교착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박사 학위가 로마 가톨릭 기관인 보스턴 칼리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에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선생님들 중 상당수가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리에서 저는 여러분이 메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지만 우리는 메리를 너무 적게 만들었다는 제 진술로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메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 누구도 메리에 대한 설교를 들은 지 오래 되었을 겁니다. 다만 올해 이맘때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교황권 같은 다른 문제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권 같은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피터가 첫 번째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브가 유대인들과 한 대화처럼, 대화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든 칼리지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가 고든 칼리지에서 정규 교수로 가르칠 수 있는지 여부는 수년간 교수진 사이에서 흥미로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신자는 여기에서 시간강사로 가르칠 수도 있고, 방문 학자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임 교수로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아니요, 그들은 전임 교수로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교리적 성명서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년 서명하고, 모든 교수진은 매년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 번째 신앙 조항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든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싶은 유일한 로마 가톨릭 신자는 진지한 로마 가톨릭 신자라고 말합니다. 별로 믿지 않는 로마 가톨릭 신자가 이곳에 오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지한 로마 가톨릭 신도를 원합니다. 진지한 로마 가톨릭 신도는 우리의 교리적 성명에 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지한 로마 가톨릭 신도는 아니오, 권위의 근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리적 성명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롭네요.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좋아요, 2번으로 넘어가죠. 세계 종교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잠깐만 세계 종교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에 대한 과정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 신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계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타주의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배타주의의 일종. 그래서 그것은 세계 종교, 기독교 외의 종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종교에 대한 한 가지 접근 방식, 일종의 배타주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두 번째, 포용주의입니다. 포용주의는 기독교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규범적 계시를 나타내지만, 포용주의는 때때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을 믿고 신이 탁월한 은혜로 주신 빛에 따라 살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용주의에 가깝지만, 신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 그의 영과 탁월한 은혜를 통해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은 포용주의입니다. 그것은 배타주의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용주의는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해 들어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방법은 다원주의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기독교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신에게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도 신에게 가는 길이며, 모두 동등하게 타당합니다. 그러니 어떤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당신을 신과 함께하는 목표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흥미롭죠. 폴 킬리히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미 수업에서 폴 킬리히를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인 폴 킬리히는 신학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론은 모든 세계 종교가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전혀 독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배타적, 포괄적, 다원주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고,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름을 언급하고 싶어요. 앗, 미안해요. 네, 저기 성을 보죠?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존 콕.

그는 또한 다원주의 시대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아래에서 다른 섹션에서 언급하려고 했지만 괜찮습니다. 다원주의 아래에 두겠습니다, 존 콕, 다원주의 시대의 그리스도.

박사 과정 중 하나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등등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존 콕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 영이 예수 안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는 간디에게 있었던 그리스도 영보다 더 많지 않았고, 힌두교의 신과 여신에게 있었던 그리스도 영보다 더 많지 않았고, 공자에게 있었던 그리스도 영보다 더 많지 않았고, 이슬람교의 무함마드에게 있었던 그리스도 영보다 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나 무함마드, 동양 종교의 신과 여신들은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수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안에 있지만, 그가 다른 종교

전통의 지도자들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의 제목을 다원주의 시대의 그리스도로 지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는 다원주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시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관점을 스스로 생각해냈고, 그 관점을 비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세계 종교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교과 과정 15페이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15페이지에 있다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죄를 고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제 죄를 고백합니다.

E3에서 저는 E3를 건너뛰고 바로 F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3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종류의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몇 가지 결론적인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E3, 그리고 E3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서 무엇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 저는 제 죄를 고백했고, 당신은 제 죄를 사면해 주시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는 지금 E3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메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의 본질? 좋아요,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신학 운동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가지고 있는지 말해.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E2라고 했잖아.

계몽주의의 기독교 신학 비판 등등. 저는 그것을 E2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E3에 포함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E3에 포함시켰나요? 글썄요, 제 마음을 축복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고백할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죄,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E4를 적지 않으세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저는 새로운 보수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희망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방과 다원주의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E4를 하세요? 좋아요, E4를 하지 않으세요. 일종의 신학적 운동이나 그런 거요? 마음을 축복하고, 우리는 이것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E4. 좋아요, E4의 1번은 제가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새로운 보수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광범위한 문화의 관점에서 197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루딘도 얼마 전 강의에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1976년에 시작되었는데, 복음주의의 해로 선포되었고,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테드와 저는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76년에 지명되어 당선되었을 때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미디어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가 뭐예요? 글썄요, 우리는 모릅니다. 가서 복음주의자가 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보통은 그것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보수주의가 생겼고, 확실히 일반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점에서, 새로운 보수주의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결합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수주의는 복음 전파와 사회 사역이 모두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보수주의는 19세기의 모델이자 모범인 피니에게로 돌아가서, 우리가 설교와 사회 사역, 사회 정의 문제를 분리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데이튼의 책 *Discovering Evangelical Heritage*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인 명제를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새로운 보수주의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분리되었던 두 가지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신학적 운동 중 하나는 새로운 보수주의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신학적 운동,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E4는 이런 것을 신학적 운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학교 교육에서 제게 매우 중요했던 두 번째 신학적 운동은 위르겐 몰트만 과 그의 책 *희망의 신학*이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주요 증거로 몰트만의 책 *희망의 신학*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문장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기독교, 312 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적어두시려면, 개신교 기독교, 312 페이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자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희망*이라는 말은, 인용하자면,

종말론의 관점에서 신학 전체를 재고한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미래로서,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로서 말입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에서 신학은 회복될 창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일부 교부들과 일치하여 타락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낙원적 성격을 넘어선 미래를 가진 창조를 향해 지향합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간 드라마는 우리가 첫 번째 뿌리를 둔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포함됩니다. 신학의 지평은 세계사와 그 미래만큼 넓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312쪽. 그러니까, 위르겐 몰트만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을 재지시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은 대체로 에덴의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에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은 어디로 움직이고,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새로운 하늘과 이 새로운 땅, 이런 종류의 성취된 왕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 생겨났고, 위르겐 몰트만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 해방 신학입니다. 금요일에 제기된 질문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언급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방 신학의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위는 제임스 콘입니다. 그는 *Black Theology and Black Pow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임스 콘은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해방의 렌즈를 통해 신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짐 루딘의 강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머, 이 강의에 꼭 참석해야 했는데, 짐 루딘의 강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목요일 밤에 그와 저녁을 먹을 수 있었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 제임스 콘은 그의 책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흑인들에게 엑소더스는 구약성서에서 위대한 경험이며, 그들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으로의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흑인들이 차용한 구약성서의 엑소더스 주제는 실제로 희망의 신학을 제공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금요일에 제임스 콘을 언급했습니다. 금요일에 구티에레스를 언급했습니다. 해방의 신학.

그래서 해방 신학은 남미에서 시작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해방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는 또한 언급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메리 데일리와 Beyond God the Father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페미니스트 신학입니다.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메리 데일리는 급진적 페미니스트 신학자였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책 Beyond God the Father에서 말했을 때, 그녀는 실제로 성경 언어와 우리가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위해 성경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그 이상 말한 것에 비하면 온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Mary Daly는 기독교 정통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기독교 정통을 훨씬 넘어 일종의 새로운 시대, 일종의 새로운 시대 페미니즘 신학과 새로운 시대 종교로 옮겨갔습니다. 제 말은, 정말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 칼리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직권을 얻지 못했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방 신학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흑인 신학, 해방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다음 그룹은 다원주의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이고, 그것은 존 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확실히 기독교 신학 내에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콕의 책에서 다원주의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섹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섹션,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비판을 하겠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마지막 섹션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미래에 대해 말할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제가 언급했나요? 아니요, 저는 Alastair McGrath의 책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Alastair McGrath, 매우 흥미로운 제목,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

옥스퍼드의 복음주의 교사인 Alastair McGrath는 복음주의를 교회의 위대한 희망이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제가 가진 다음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아요, 그 모든 것을 말한 후, 이 모든 신학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을 어느 정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보수주의, 희망의 신학, 해방의 신학, 다원주의, 복음주의, 비판할 점이 있나요? 좋아요, 제가 첫 번째로 비판하고 싶은 것은 프린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이것을 신학의 달 클럽, 신학의 달 클럽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분적으로 옳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신학의 달 클럽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이 한 문화적 사물에서 다른 문화적 사물로 옮겨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인데, 한 달의 신학 클럽은 21세기 초기 교회에서 좋은 안정된 신학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이 한 달의 신학 클럽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사항은 우리가 이야기한 많은 신학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명확한 성경적 기반, 성경적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정말 좋은 성경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에서 벗어났습니다.

희망 신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몰트만 에게도 사실일 것입니다 . 그는 성경을 신의 독특한 계시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가진 비판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학 중 많은 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시작하지만 그다음에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제 세 번째 비판은, 이런 신학들 중 많은 것이 그리스도론적으로 근거를 두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들 중 많은 것이 그리스도론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을 신학의 틀로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존 콕의 초기 저술과 후기 저술을 비교하면, 존 콕의 경우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초기 저술에서 그는 그리스도론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후기 저술에서 그리스도 정신은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만 공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론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있습니다.

좋아요, 제 다음 비판은 이러한 운동 중 일부가 분명히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 데일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그녀는 기독교 내에서 일종의 충성스러운 토론자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신학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없애고 싶고, 교회에서 나가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처한 상태이고, 신학의 달 클럽 상태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거기에요. 좋아요, 이강의 14의 결론일 뿐이에요.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신학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다음에 이 과정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처럼 E 섹션 3을 건너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알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알렉스? 네, 신학의 달 클럽, 프린스턴 교수. 신학의 달 클럽은 거의 문화와 비슷해요. 그리고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 새로운 신학을 선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스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가 일종의 페미니스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가 일종의 다원주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원주의에 대해 말할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은 문화가 항상 움직이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항상 그 표적을 쫓으려 한다면, 당신은 항상 문화에 맞는 새로운 신학을 발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가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영원한 말씀인 성경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의 비판이었습니다. 좋아요, 강의를 결론입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마지막 10분 정도 전에,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의 교파적 삶이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냥 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과정을 넘어 신학의 발전을 진지하게 살펴보려고 한다면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방법이 사람, 사상, 사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진정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려면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그 생각을 형성한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신학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 일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훌륭한 목회적, 훌륭한 목회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구민들을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학문적 연습으로만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칼빈이나 루터, 쉘라이어마허, 바르트, 니부어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회 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도 생각납니다. 물론 그들은 목회 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학문적 연습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드와 저는 방금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 종교 아카데미 회의에 갔는데, 여기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학문적 연습으로만 합니다. 그들은 교구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웅장한 관점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은, 종교 개혁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18세기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19세기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신학에 대한 큰 그림을 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과목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신학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학을 개발하고 있으며, 항상 그리스도론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퍼의 그 질문,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신학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신학을 개발할 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론적 질문과 예수가 누구인지로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신학이 빛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같을 거예요, 알죠? 그럴 경우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항상 신학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세요. 그 다음, 두 가지가 더 있지만,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제,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기술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 당신만의 신학을 공식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신학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매우 개인적인 종교이지만, 결코 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교회의 맥락, 신자들의 공동체에서만 당신만의 신학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성경만이 당신의 신학을 공식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성경이 사물을 생각한 다음

당신이 생각한 것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신자 공동체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신학을 공식화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공동체의 맥락에서요. 그것은 혼자 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칼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칼빈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빈을 신학의 외로운 레인저로 취급하고 그저 자신의 신학을 실천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칼빈은 매주 화요일에 개혁된 목사들과 만나 일요일에 설교할 신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결론에서, 칼빈이나 바르트, 쉘라이어마허가 말했듯이 신학은 모든 세대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서,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서 신학은 재이해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세대에서 그 신학에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빈이나 쉘라이어마허, 라우센부쉬, 바르트 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의 신학을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수업입니다. 이것은 현대 신학에 대한 세션 27입니다.